

광주, 사적 모임 8명까지... ‘일상의 문’ 열린다

코로나19 확진자 한자리수 ...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 ‘안정세’
백신 접종률 26% 넘어 ... “방역수칙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코로나19로 1년 넘게 닫혀있던 ‘일상의 문’이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 6월 7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방역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여전하지만, 시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돕기 위해 엄격한 자율방역을 전제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협조를 믿고, 18일부터 사적 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적모임을 8인으로 확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는 6월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방역 책임을 강화한 민관협치형 ‘자율책임 방역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선 점도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시장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이 회복되는 대신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다음 달 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강원,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오른쪽 두 번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범위 건설현장 추가

당정, 지방선거 공천에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챙겼는지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현장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 관리 부실 등 고질적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 과정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무허가 부실업체가 철거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산업 재난과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 반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고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내(건축물 해체 공사)점점 계획과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 명의의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지역안전 대전단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지방선거 공천 때 광장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예정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산재TF 소속 이병훈·이탄희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 윤성선 국토교통부 1차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자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중앙공원 1지구 속도 낸다... 후분양·평당 1870만원 확정

‘80평 분양·45평 임대’ 모두 철회
롯데 시그니처 2804세대 조성
토지 보상비·사업자 갈등 과제로

각종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은 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계획 철회 등을 담은 조정안에

합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 규모, 분양가, 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이 이어지자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89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낮췄다. 논란이 된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공급 계획은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총 세대수를 기존 2827세대에서 2804세대로 줄였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기존 3.3㎡(평)당 515만원에서 65만원을 낮춘 450만원으로 조정했다.

광주시는 또 내년 하반기 예정인 분양 시점에 사업 대상지가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되면 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이나 추가 분양가 인하 등을 검토하도록 협약서 특수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 조정안 확정에 따라 앞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시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를 광주 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한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명품 브랜드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시공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완공 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아파트 개발 면적은 뺀 공원 91.8% 공간에는 8개 기능을 갖춘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한다.

다만 개발일정 지연 등으로 급상승한 토지 보상비와 SPC내에서 진행중인 일부 사업자간 법적소송 등은 해결과제다.

이에 대해 SPC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은 대표 주간사로서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전부터 1600만원대에 선 분양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한 뒤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광주시가 원점 재검토를 무시한 채 SPC와 지난 1월 잠정합의한 변경안으로 회귀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민간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토지 보상비 상승 등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명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첫 파키스탄 가족 난민 인정	▶6면
북스 - '해피 크리스'·'질문하는 역사'	▶14·15면
윌리엄스 "이의리 멘털 커트 실링 닮아"	▶18면

행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광양도시 광양
광양코드로 방문하세요
gr.gwangyang.go.kr/

광 양 시